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이곳 사역을 위하여 잊지 않으시고 늘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의 일반적인 주일의 모습은 교회에서 약 2시간 가량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는 바로 장년을 위한 1시간 이상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 가는 것이 평범한 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고(?), 계속되다 보니, 사실 모두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역력해집니다. 저 역시 예배에 참여 할 때마다,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잘 참으리라는 다짐을 제 자신에게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요 어린이 성경학교 및 장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번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부모들을 위한 2부 예배는 저들의 인내를 키우는 고통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많은 준비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파격적으로 짧은 1시간의 예배와 간단한 음식을 나누는 친교로 2부 예배를 구성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부 예배를 드린 기존 교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여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친교를 나누며 새로운 교인들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2부 예배에, 주일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항상 참석을 하는 로델의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두들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친교를 나누는 중에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살며 늘 함께하는 교우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입니다. 궁금한 중에 제 아내가 로델의 가족이 사는 곳을 방문해 보니, 열이 펄펄 끓는 어린 아기를 땅 바닥에 놓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에도 갈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아픈 아이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델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다섯명의 어린 자녀가 두 평이 안되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나마 학교에 다니는 로델의 누나는 저희 장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맨 땅바닥에 어디에선가 주어 온 비닐

을 깔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의 찬 기운과 습기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 건강한 사람마저도 아프게 될 수 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는 어려운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친교를 나누지만, 교회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또한 필요할 때 교회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더 지체 할 수 없어서 로델의 어머니와 어린 아기뿐만 아니라, 이들을 옆에서 도와 줄 사람과 함께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병원비를 미리 주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일단 안심하고 저희는 먼저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날 주일 저녁, 몸은 피곤하더라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만은 평안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진료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 병원 진료비를 충분히 미리 주었지만 아이의 약 값을 고려하지 못한 것, 진료 후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차비 또한 미처 생각지 못한 것, 아픈 아이가 또 다시 찬 기운과 습기가 올라오는 땅 바닥에서 누워서 지내야 하는 것, 낮에 그들이 사용한던 그릇에 남아 있던 빈약한 음식이 기억 나는등 수 많은 생각으로 인하여 밤 잠까지 설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흉내는 내었는데, 좀 더 마음 깊이 헤아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왕하 4:13)**



건강과 웃음을 찾은 로델의 가족

제가 생활하는 이곳 선교 캠프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월요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생각은 온통 로델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시장에서 로델의 가족에게 당장 꼭 필요한 비닐 장판, 쌀, 우유, 달걀등을 사고, 필요한 옷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서둘러서 해변 교회 마을로 향하였습니다. 깊이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도 미안한 마음으로 로델의 가족이 사는 집에 마침내 들어서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아이는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밝게 놀고 있고, 가족들도 평상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해서 세심하지 못했지만, 병원 진료비도, 약 값도, 그들의 차비도 부족함이 없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간 비닐 장판을 깔아 주고, 음식과 옷을 전해 줄 때, 로델의 가족이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보고,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저희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심이니라  
(롬 8:27)**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제게 있어서 지난 시간 가장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 공부한 것은 아쉽게도 성경도 아니고, 제 전공인 전자나 컴퓨터 분야도 아닌, '영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매일 영어 사전을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분야에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칭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30년 이상이나 공부한 영어는 아직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대화를 하고, 책을 보는 단순한 일상을 넘어서, 영어로 마음 깊이 생각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때때로 영어 성경의 쉬운 표현들을 통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영혼을 두드리는 말씀은 제 모국어인 한국어로 된 말씀입니다. 영어로 기도를 해 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속 깊은 간구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고 아쉽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영어로 된 찬양에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많지만, 한국어로 된 찬양을 불러야만 마치 김치에 밥을 먹은 것처럼 깔끔합니다. 모국어가 이렇게 중요 합니다.

제가 생활하는 이곳에서는 또 다른 언어의 어려움을 실감하

고 있습니다. 표준어인 '따갈로그'가 있고, 미국의 식민 생활을 한 까닭에 영어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 나라에, 섬으로 분리된 지방마다 독특한 언어가 따로 존재 합니다. 이곳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쪽 언어인 '세부아노'가 변형된 '비사야'라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부 사람들은 이곳 토착 언어인 '일롱고'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사야'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글'로써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말'로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즉, '비사야'로 쓰여진 책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표준어인 '따갈로그'로 된 교과서를 '비사야'라는 말을 통하여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복잡한 언어 세계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이웃 주민 중에 한 가정은 집에서 '일롱고', 집 밖에서는 '비사야'를 사용하고,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따갈로그'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선교사들을 통하여 성경은 이들의 마음의 언어인 '비사야'와 '일롱고'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사람들은 영혼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모국어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이곳은 모슬렘 권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곳 지방색이 타 지역 사람들에게 거칠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즉, 타 지역에서 이곳의 토착 언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위험한 인물로 경계를 하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언어권에 저희가 있습니다. 유창하게 현지어를 말할 수 있어도, 이 곳을 벗어나면 별로 유익이 없어서 사용을 자제 해야하는 언어처럼 보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만 이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에 어눌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언어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새로운 언어에 자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눅이 드는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인도가 없으면 도저히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저희입니다. 이곳 언어를 잘 습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 51:15)**

# 8 Photo Gallery



장학 사역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한 2부 예배



새로운 지역의 어린이들과 말씀을 나누며



장학 사역을 통하여 새로 등록한 교우와 손자



손가락이 잘린 아픔 속에서도 밝은 '도동'



아이들의 성경 암송을 도우며



새롭게 등록한 아이들의 집을 심방하며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 NEW SPIRIT FAMILY

	A - 35	이름	Kimberly Valenzuela
	별명	Justy	
	성별	여	
	생년월일	Nov. 18, 2001	
	학년	1	
	부모 직업	무직	
	형제 수	3	

### 자기 소개 및 기도 제목

1. 커서 의사가 되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고 싶습니다.
2.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 합니다.
3. 기도 제목
  - 아빠, 엄마가 싸우지 않도록
  -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 동생들이 말을 잘 듣도록
  -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 오빠와 같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 학생 소개

동생보다도 학교에 늦게 입학할 하여 아직 글을 잘 모르지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암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교회에 가끔 출석을 하고, 아버지는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일을 찾고 있는 부모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A - 14	이름	Yvonne B. Suazo
	별명	Yvonne	
	성별	여	
	생년월일	Dec. 18, 2000	
	학년	4	
	부모 직업	경비	
	형제 수	4	

### 자기 소개 및 기도 제목

1. 장래에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2.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과 노래하는 것을 좋아 합니다.
3. 기도 제목
  -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 아빠가 안전하도록

### 학생 소개

작년 토요 성경 암송 프로그램에서 10귀절의 성경을 가장 잘 암송한 밝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성경 학교 종강식때에는 이 학생의 어머니께서 학부모 대표로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의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여서 어린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학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